

학회에 바란다

대한건축학회에 바란다

박한규 (전복대 교수)

우선 우리 대한건축학회가 창립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 까지 여러가지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회운영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해 주셨던 간부회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학회창립 40周年을 맞았던 지난 1985년을 시점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10년 동안에는 여러가지 업적도 많았지만 상당수의 회관건립을 위시해서 학회지와 논문집과의 분리발행, 춘추계 학술발표회의 대대적인 활성화, 학생졸업작품의 품평회, 그리고 각종 학술교류 및 진흥 등 몇 가지의 변화와 발전이 있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제 내년 1995년은 우리 대한건축학회가 창립 50周年을 맞는 해로서 특히 국내 제일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회가 더욱 튼튼한 장래를 내다보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학회의 정관을 위시해서 학회의 본질과 참뜻,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력과 시대사회의 변화요구 등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는 차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만 이야기 하겠다.

첫째, 학회의 기능이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가, 기능을 더욱 활성화해서 그 효능을 국제화, 개방화, 정보화, 선진화, 시정화에 대비해야 하지 않겠는가.

“학회”란 무슨 뜻인가? 학문하는 사람, 그리고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요, 모이는 곳이다. 따라서 자주 만나고 다양하게 여러사람을 만나는 것이 유익하다. 현재 우리는 춘추계로 나뉘어 일년에 전국회원모임 행사가 장소를 빌려 두번 있고, 그리고 가끔 분과별

심포지엄이나 세미나 형식의 모임이 한두 번 혹은 두세 번 있을 뿐이다. 발표도 그토록 짧은 시간에 학문이 제대로 논(論)해질 수 없고 만나는 일곱들도 항상 똑같은 사람들이다. 진정으로 학문을 위한 만남이라고 보다는 발표자들의 여러가지 조건충족과 행사를 위한 만남으로 끝나버린다. 제대로 하자면 2박3일이나 3박4일 정도가 필요한데 한 국실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 말하자면 현재와 같은 조건과 분위기로서는 학문을 좋아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자주 만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학회는 회원들간의 학술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자주 만남으로써 우의를 더욱 폭넓게 돈독히 하기 위해서는 정보센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정보화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우리 회원들이 무엇이든지 자기 학문에 관련된 자료라든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면 학회를 찾아가면 해결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학회는 하루 빨리 학회도 사실을 확장 발전시켜야 한다. 그래서 독서실도 갖추고 진지한 학술토론을 위한 소회의실도 갖추며 전시실도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그것들을 전부 개방해야 한다. 오늘날은 교통이 매우 발달하여 전국의 지방 어느 곳에서도 서울 왕래가 매우 잦다. 학회는 모든 회원들의 만남과, 교제와,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 영국 건축가협회(R.I.B.A)는 건축 및 관련도서를 4만여 권이나 보유하고 있으며 건축협회(A.A)가 보유하고 있는 건축 및 관련 슬라이드만도 10만

장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풍부한 건축정보자료는 모든 회원들을 모여들게 하는 장(場)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회원들에게 각종 자료의 대여는 물론 판매행위까지 매우 합리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 대한건축학회가 보유하고 있는 도서자료는 얼마나 될까 궁금해진다. 필자가 알고 있기로는 1천 권을 넘지 않고 있다. 이래가지고 참 학회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겠는가?

둘째, 학회는 분과별 소규모의 학술강좌를 적어도 매월 1회 이상은 개최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그 지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대규모 총회발표 보다는 소규모의 전문분야별 학술모임을 자주 갖고 좀 더 심도있는 토론이 전개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제 학회의 집행예산도 과거보다 차츰 확대발전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다소의 부리가 따르더라도 다양한 학술모임을 자주 가졌으면 한다. 한편 국제화, 선진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국제학술교류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와 같은 뒷받침이 되기 위해서 가능한 회원에게는 논문이라든가 학술발표가 영문(英文)으로도 이뤄질 수 있게 하고 영어로 진행될 수 있게 하는 문제도 고려해 보직하다.

셋째, 학회는 국내에서 잘못되거나 또는 잘못되어가고 있는 일체의 건축관련 법률이나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앞장서 나갈 것은 물론 강력한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또 그것을 실행해 나가야 한다. 모든 법률이나 제도는 해당 학문분야의 순수한 본질과 그 기본가치 위에서 만들어 질때만이 진실로 모든 국민을 위한 법이 되고 또 효용성있는 제도가 되는 것인데 우리 건축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법률가 자신들만을 위하고 행정편의주의의 제도가 만연되고 있다. 건축에 관한 한 모든 사회질서의 근본 뿌리가 되고 있는 교육제도가 잘못되어 있으니 실무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종 부정과 부패, 무조리는 당연한 결과이다. 건축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학회의 역할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 필자가 이 글의 서두에서 인사말씀을 올렸듯이 그동안 학회운영을 담당해 오신 간부회원 여러분들께 그 수고하심에 대해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리는 가운데서도 아직까지도 교육제도개선의 목적을 달성시키지 못함에 있어서는 박수를 보내드릴 수가 없다.

넷째, “건축” 학회지 구성의 개선을 바란다. 1985년 논문집을 별도로 발행하면서 학회지의 편집구성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매우 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다양한 분야별로 구성되고 있는 “특집”란은 회원 모두에게 매우 유익한 자료가 될 것으로 확신해 마지 않는다. 이렇게 특집란이 있으니 여기에 컬럼란도 신설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각 분야영역에 전문가들로 하여금 주제별로 몇 회에 걸쳐 연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건축은 그 학문의 특성상 이론(주로 논문, 논설)과 실제(주로 작품)가 부합되고 있는 학문으로서 논문, 논설, 해설 등은 학회지에 잘 취급되고 있으면서도 작품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 작품에 대해서는 주로 “건축사”지에서 취급하고 있으나, 그것들은 건축사회원들의 작품에 관한 설명과 보고형식으로 구성되고 있을 뿐, 작품 또는 설계에 관한 연구를 취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구나 연구는 논문집이 별도로 발행되고 있는 터에 당연히 작품에 관한 연구도 발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과거의 작품들에 대한 리뷰도 좋고 이름있는 작품들에 대한 해설도 좋을 것이다. 각 대학에서 수행하고 있는 우수졸업작품이나 대학원생들의 학습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삼아도 좋을 것이다. 현재 학회에서 도모하고 있는 졸업작품평회의 보완차원에서 입선 입상된 작품들에 대한 보다 더 구체적인 설계계획에 대한 설명란을 마련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학회지는 적어도 대학원생 이상

이면 모두 받아 보고 있기 때문에 학문의 지상 토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끝으로 회장단을 비롯한 현 집행부 회원 여러분들께 한 말씀드린다. 지금까지 전개되어 오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순된 건축관을 바로잡지 못했던 책임, 그리고 앞으로 바로 잡아 나가야 할 책무도 역시 건축 3단체 가운데서 당연히 우리 학회가 부여받아야 한다. 정당하게 보장받아야 할 우리 건축인들의

권익이 사회로부터 손상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 궁극적인 원인은 잘못된 모든 건축관련 제도, 법령에 관한 개도를 잘못했고 또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방치해왔기 때문이다. 바르고 정당한 가치를 찾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편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의 건축가치를 바로 찾기 위해서는 집행부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열과 성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하나의 큰 자국을 남겨놓기 바란다.

학회와 회원간의 관계 개선

이상호 (서남대 교수)

1. 소극적 참여와 적극적 참여

학회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인 회원이 있어야 하고, 학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회원들이 무관심하거나 계속 탈퇴해 나간다면 그 학회는 존재가치를 상실하고 말 것이다. 많은 회원들이 학회의 역할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학회에 참여할 수 있다면 그 학회가 더욱더 성장해 나가리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대학원 정도 나왔으면....., 학술발표에 의무적인(?) 발표 때문에....., 이만큼 건축분야에 종사해 왔으니까... .., 그 어떤 이유이든간에 일반 회원들의 학회 참여는 처음에는 큰 의미를 갖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물론 초창기에 학회를 키워왔던 회원들은 어떤 사명감을 갖고 시작했을 것이고 지금도 그러한 회원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 믿지만). 결국 회비를 내고 학회지와 논문집을 받아 보며, 이력서의 학회활동란에 ‘건축학회 정회원’이

라고 기입하는 정도의 가치밖에 지니지 않음을 깨닫는다.

회원들 중에는 기계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있을 뿐 학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 곳이며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조차도 생각치 않는 소극적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좀더 적극적인 학회참여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회원도 있음에 틀림없다.

현행 학회의 기구표를 보면 일반 회원들이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부분으로, 모든(?) 건축의 전공분야가 포함되어 있는 위원회가 눈에 띈다. 누구나 한번쯤은 내전공은 어느 위원회에 속하는가 그리고 그 위원회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학회는 모든 회원에게 열려져 있어야 한다.

2. 건축학회내 위원회의 모습

건축학회 내에 위원회가 현재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1968년 8월 30일 이사회에서 17개 위원회(연구부 내에는 13개 위원회)를 설치하면서 본격화하였다. 이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분

화 또는 통합되고 명칭이 변경되기도 하였으나 그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1985년(학회창립 40주년 당시)에는 35개 위원회(연구부 내에는 23개)에 1,475명의 위원을 헤아리게 되었다. 그 후 1987년에는 연구부 27개, 총무부 5개, 사업부 7개로 늘었고, 1989년에는 연구부 31개, 총무부 7개, 사업부 8개로, 그리고 1991년, 1993년에는 연구부 35개, 총무부 7개, 사업부 7개로 확대되었다.

연구부의 위원수를 보더라도 1985년에 1,165명, 1987년에 1,401명, 1989년에 1,949명, 1991년 2,360명, 1993년에는 2,437명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하였다(복수참여를 무시하면).

1994년 5월호 건축잡지에 게재된 새로운 건축학회 기구표를 보면 거의 기존의 위원회가 망라되어 있다. 다만 연구부를 1, 2부로 나누어 위원회를 두었고 각각의 위원회에 기존의 상설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전환시켰다. 특히 연구 2부의 분과위원회에 건축의 전공분야를 분류한 점이 눈에 띈다. 그리고 그것이 연구분야를 강화하여 학술단체로서의 건축학회의 위치를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 좋은 느낌을 주고 있다.

또한 개정된 기구표는 지금까지의 대소 위원회의 순서없는 나열방식에서 느껴지던 무질서함(?)에서 각각의 전공분야의 근거를 알려주는 지침을 보듯이 알기 쉬운 한 점은 학회가 한걸음 발전한 느낌을 준다. 다만, 아직도 현재의 분류가 최적이 상태인지는 판단할 수 없다. 너무 세분화되어 있는 위원회는 없는지? 너무 덩치가 큰 것이 하나의 분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새로운 위원회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계속적으로 연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어쨌든 당분간은 현재의 기구표대로 학회가 운영되어 갈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문제는 이러한 위원회 조직이 형식적인 개편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각 위원회 내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종래의 방식과 다른 새로운 것을 채택하

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한 일반회원 중에는 그것에 관심을 갖고 기회가 주어지면 열심히 활동해 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3. 일반회원의 학회참여의 길

2년마다 건축잡지에 실리는 위원회의 명단이 발표되면 한번호는 아는 이름이라도 있을거 해서 눈여겨 보게 될 것이다. 어쩌면 내가 전공하는 분야에 이러

표 1. 건축학회 위원회 및 위원수의 변화(1985년 이후)

부	위 원 회	'85	'87	'89	'91	'93
	총 무 부	90	126	193	199	202
연	건축계획	105	93	108	193	188
	건축설계	66	71	95	122	82
	철근콘크리트구조	95	103	112	153	144
	철골구조	45	52	61	96	98
	철 및 공간구조	-	-	-	33	51
	건축구조재료	91	79	84	88	89
	건축일반재료	22	32	71	87	87
	건축시공	123	140	131	-	-
	건축시공기술	-	-	-	114	113
	건축시공관리	-	-	-	64	93
	건축법제	40	43	48	49	49
	건축역사	46	41	110	41	39
	주택문제	79	40	-	-	-
	주택	-	-	91	102	103
	건축방재	21	21	42	74	88
	건축환경	80	118	127	146	147
	건축심리	-	-	-	33	49
건축설비	41	46	67	66	90	
실내환경정화	-	-	-	40	42	
구	도시계획	54	55	60	80	80
	조립식건축	42	59	75	93	-
	공업화건축	-	-	-	-	68
	건물에너지	44	62	-	-	-
	건축에너지	-	-	104	55	62
	농어촌계획	20	15	35	-	-
	농어촌건축	-	-	-	34	41
	전자계산	16	32	36	-	-
	건축정보	-	-	-	36	28
	건축교육	32	66	98	86	86
부	건축공업규격	41	23	35	41	28
	기초구조	27	27	28	-	-
	건축기초구조	-	-	-	34	29
	구조표준	20	19	26	45	48
	드시재개발계획	37	55	52	-	-
	재개발계획	-	-	-	-	67
	실내디자인	-	18	30	11	14
	조경	-	17	18	20	20
	건축의장	-	34	69	39	46
	건축구법	-	-	29	59	69
건축문화재	-	-	35	44	65	
CAD	-	-	20	47	48	
건축자재시회	-	-	14	15	38	
지역개발위원회	*37	*38	*38	53	48	
소 계	1,165	1,401	1,949	2,360	2,437	
사 업 부	184	228	242	163	214	
합 계	1,475	1,755	2,384	2,722	2,853	

* 지역개발위원회는 1989년까지 사업부에 속했었다.

한 사람들이 선두(?)를 달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부러움 반, 질시 반의 눈으로 보고 있을 지도 모른다. 또한 건축을 계속해서 전공해 온 회원이라면 나도 어떤 위원회에 소속되어 명단에 실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할 것이다. 그리고 아직 그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는 모르지만 비슷한 전공의 많은 사람(오랫만에 뵈는 스승, 선배, 동료들 그리고 새로 만나게 될 같은 전공의 회원들)과 접촉하여 학회지나 논문집에서 얻을 수 없는 건축에 대한 정보를 얻기를 희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위원회의 명단을 보면 느껴지는 점이 또 하나 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떤 절차(?)를 밟아 위원이 되었으며, 적게는 2~3개, 많게는 6~7개의 위원회에 동시에 참여하여 어떻게 활동해 나갈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1985년에는 연구부 내의 위원들은 한 사람의 위원이 3개 이내의 다른 위원회에 동시에 가입 활동할 수 있었다 한다. 그러나 그것이 명문화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가 보다.

어떠한 자격기준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어디를 찾아 보아도 알 수가 없다. 또한 복수참여 위원이 많은 것이 유사 위원회가 많아서인지 아니면 꼭 그 사람이 아니면 적당한 사람이 없어서인지는 몰라도(때로는 본인도 모르게 올라 있는 경우도 있는 듯하다) 가능한 위원회 활동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도 여러 위원회의 동시참여는 최소한으로 축소하여야 할 것 같다. 아마도 명단에는 올라있어도 거의 참여가 불가능했던 위원도 있었을 것이다.

금년 5월 10일의 개정된 운영규정에는 각 분과위원회의 인원을 10~30인 정도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 100명이 넘었던 위원회는 사라질 것 같다(전공별 인원의 불균형을 조정해야 하는 문제는 있지만).

위원 구성에 있어서 자격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는 그리 단순하지 않을 듯

하니 제쳐두고, 예를들어 지부회원들의 경우는 여러가지 문제(위원회 평일소집 문제, 교통이나 비용 문제, 직장 내의 문제로 인한 회의 불참 등)가 있겠으나 지부 추천방식(본부 위촉과 지부 추천의 병행 방식)으로 참여의 기회를 준다든가, 만약 개정 전처럼 전회원의 40~50%의 인원에 해당되는 수의 위원이 필요하다면, 한 사람의 동시참여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참여희망 위원회를 조사해 두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건축잡지에 회송용 엽서 등을 첨부하는 방식도 있다). 물론 전회원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위원 자격기준을 정하는 문제가 더욱 크게 부각되었지만.....

일단은 총무부와 사업부는 제외하더라도 연구 1부의 일부분과 연구 2부의 분과위원회는 모든 회원에게 개방되어야 할 것이다. 적어도 일반회원들에게 자신들의 회비로 소수의 위원들만이 연구를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는 안되었기 때문에 라도.....

4. 모든 회원의 학회로서의 건축 학회

건축학회의 취지는 “건축에 관한 학술, 예술, 기술을 연구 연마하고 건축인의 지위향상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건축문화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다.

학회가 어느 특정 그룹의 연구를 위한 것일 수는 없다. 더욱이 개인의 지위향상을 위한 것일 수도 없다. 학회는 회원 모두가 학술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연구해 나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회원들간의 친목은 가끔 열리는 테니스 대회 같은 친목행사나 몇몇 세미나 개최 등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학연이나 지역적 인연은 오히려 국소적인 친목에 그칠 것이다. 그동안 문헌이나 논문을 통해서만 들어왔던 같은 분야의 사람들과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친목은 자연스럽게 이

루어진다고 생각한다.

선학은 후학에게 그들의 연구자세를 후학들은 선학들에게 연구의 의욕을 서로 교환해 갈 수 있는 자리가 많은 회원에게 돌아간다면, 그 만큼 학회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져 학회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을 것이다.

지부회원으로 활동할 때 본부활동으로 부터 소외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해서는 안된다. 또한 산업현장이나 공무원이기 때문에 학회에서의 활동이 위축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그들도 여건이 허락되고 참여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면 당연히 같은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전회원의 위원회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많은 회원들이 학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50세를 목전에 둔 건축학회의 발전과 무관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참고자료

1. 대한건축학회지, 건축, 제29권 3호, 1985. 5
2. 전게서, 제31권 3호, 1987. 5
3. 전게서, 제33권 3호, 1989. 5
4. 전게서, 제35권 4호, 1991. 7
5. 전게서, 제37권 4호, 1993. 7
6. 전게서, 제37권 4호, 1994. 5
7.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40년사, 1985. 9

대한건축학회에 바란다

문창호 (순천대 조교수)

1. 머리글

마감이 촉박하여 속달로 배달된 원고 집필의뢰서를 받고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잠시 생각해 보았다. 그간 학회의 학술발표회나 위원회의 학술행사에 참여하면서 회원들과 의견을 나누는 것과 개인적인 단상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2. 건축분야의 전문화

건축구조, 건축사, 실내디자인 등의 분야에서 독자적으로 전문분야의 학회를 결성하고 있다. 필자가 활동하고 있는 한국병원건축연구회도 사단법인 한국병원건축협회로 개편하여 실질적, 전문적인 단체가 되고자 한다. 몇몇 대학에서 건축의 특정분야를 위한 연구소가 설립되는 등 건축계에서도 전문화를 위한 노력이 보인다.

추세가 그렇다면 건축학회는 각종 위원회를 독자적인 전문학회로 활성화시키고, 이들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연합회(가칭)로 개편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하나의 예로서 출제 학회는 연합회가 주관하여 출제를 겸한 일반행사 위주가 되며, 추계학회는 전문분야 학회별로 학술행사가 되게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3. 장기적인 기획 및 홍보

건축학회를 통하여 학술행사를 알리는 염서를 받으ณ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참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방에서 생활하는 필자에게는 이러한 배려가 고맙기 그지 없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기획 및 홍보기간이 짧

아서인지 날씨가 촉박하고 행사에 가보면 내용이 빈약하고 참석자도 적은 경우가 많다.

하나의 학술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헌신적인 노력과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성공적인 학술행사를 위해서는 최소한 기획은 1년 이전에 홍보는 3개월 이전에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 준비부족이나 중복된 일정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경우는 줄어들 것이다.

4. 건축학회의 정보화

건축학회에서는 컴퓨터 통신이 아직 대중화되지 못한 느낌을 받는다. 현재 상업화된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문자의 전송은 용이하고 값도 저렴하다. 물론 화상자료의 전송은 아직 그렇지 못한 것 같다. 필자는 천리안을 이용하여 여러사람과 자료를 주고 받기도 한다.

천리안이나 하이텔의 전자우편, 팩스 서비스를 이용하면 학회의 각종 행사를 알리기 위하여 발송되는 염서의 양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정보전달의 정확성과 함께 상당한 예산절감의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이번의 "대한건축학회에 바란다"와 같은 원고는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면 디스켓을 보내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어서 원고의 전달이 신속하고 편리하다.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건축학회에서도 단시일내에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정보의 수발이 가능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러한 초보적인 컴퓨터 통신으로부터 이용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건축학회의 국제화

개방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회원들이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또한 건축학회는 세계 건축학계에서 우리의 국력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할 필요도 느낀다. 기술, 용역 시장이 개방되어 외국회사가 들어오는 것만을 두려워하지 말고, 유관단체와 함께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외국의 시장과 분야도 검토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외국의 건축학 관련단체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실질적인 인적, 물적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학회차원에서 각종 건축관계 국제 학회·회의를 주관하거나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회지에 홍보하고, 발표자를 지원하거나 관련 위원회의 대표를 파견하고, 귀국 후 주요 내용을 회지에 기고하게 하여 회원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6. 원고의 Photo-Ready화

회지나 논문집이 제때에 발간되지 못하는 데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원고의 수집, 심사 및 교정 등의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도 있을 것이다. 현재 학술발표회의 원고와 같이 출판전전의 상태로 제출하게 한다면, 편집, 교정 등에 대한 거의 모든 책임을 제출자에게 있으며, 출판기간도 상당히 단축될 것이다.

국제화하나 외국의 잡지를 보면 많은 경우가 이러한 방식의 원고를 요구하고 있으며 논문집의 인쇄상태도 양호함을 볼 수 있다. 이젠 국내의 어느 연구기관이나 출판한 한글 편집 프로그램과 레이저 프린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지나 논문집의 출력양식만 자세하게 정해준다면 이러한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7. 지부학회의 활성화

1년에 2회, 이 지역에서도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부 학회가 열리고 있다. 이때 학술발표회도 개최되는데, 발표자는 거의 이 지방의 건축과 교수들이 된다. 박사학위를 마쳤거나 방문교수로 외국에 다녀온 교수들이 수준높은 논문이나 외국에서의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진지한 토론도 이루어진다.

문제는 학술논문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발표하기를 꺼리는 점이다. 이는 광주·전남지부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어떠한 형태로든 전국의 지부학회에서 발표된 논문들이 모아져서 공식적인 건축학회 논문집으로 출간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올해도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제2회 건축설계 캠프가 열렸다. 지부학회가 행사를 주관하고 건축사협회 지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이 행사도 근본을 보면 설계교육의 연장이므로 각 대학 건축과 교수들이 참여하여 봉사하고 있다. 연조가 짧고 경험이 부족해서인지

진행이 미숙하고 매끄럽지 못하다. 전국 여러 도시에서 이러한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 건축학회 차원의 지원이 요청된다.

몇 년 전에 건축학회가 각 지부학회와 연계하여 문화재 실태조사를 행한 적이 있었다. 상당한 결실을 보았고 몇 권의 보고서로도 발간되었던 기억이 있다.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것 또는 지부학회 단독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연구사업을 건축학회가 엮어주고 지원해주는 역할도 해야 할 것이다.

8. 맺는말

대한건축학회가 내년이면 창립 50주년이 되는데, 오랜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추진사항으로서 건축분야의 전문화, 장기적인 기획과 홍보, 건축학회의 정보화, 건축학회의 국제화, 원고의 Photo-Ready화, 지부학회의 활성화 등을 들었다.

원들간의 상호작용 양식 등 생활구조 전체가 바뀌는 새로운 사회적 패러다임의 등장을 의미하여, 닫힌 틀보다는 열린 개체, 규제나 기준보다는 자율성, 완벽한 마스터 플랜보다는 시행착오를 인정하는 아이디어의 개발이 사회조직의 관리에 있어서 더 중요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아직, 거대한 조직을 이루면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시대적 사고에 아직 젖어 있다. 전환기, 더구나 급변하는 세계 조류 속에서 거대조직은 만능일 수 없으며, 작은 조직이 개방 사회에 대한 대처, 자율성의 확보, 아이디어의 개발에 있어서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러한 전환기에 일어나는 변화는 한 개인이나 일부 사회 및 단체를 초월하여 전 사회 구성체에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학회는 어떠한 변신을 해야 할까.

유사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사협회에 비하여, 학회는 건축 내의 여러 분야를 대부분 포괄하는 혼성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 성격은 서로 이질적일 수 있는 여러 분야의 의견을 쉽게 수렴함으로써 건축계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과,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이슈에 대한 처리 능력이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부정적인 면을 같이 가지고 있다.

이 전환기를 맞이하여, 학회는 어떻게 대표성을 강화하고 비효율성을 제거할 것인가, 기구를 크게 조직화해야 할 것인가, 각 부서에 자율권을 확장해야 할 것인가, 다양하고 급변하는 전환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혼성적인 학회는 전체 의사를 수렴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하부 부서의 자율적 판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기구는 수직적인 조직보다는 수평적 조직으로 구성하고 대표성을 가지는 총회, 회장단과 전문분야별 실무 부서를 중심으로 단순화해

학회의 미래, 그 기구와 역할은

이영한 (서울산업대 전임강사)

조직적 거대 기구 혹은 자율적 작은 조직

모 인사는 가협회가 비교적 동질적인 작은 조직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큰 조직보다 의사결정이 용이하고 추진력이 있다고 말하였다. H회사는 거대한 생산라인으로 요트를 건조하여 세계 시장에 뛰어들었으나, 대만의 주문제작형 중소기업체와의 경쟁에서 뒤지게 되었다. 마이크로 소프트 회장인 빌 게이츠는 55년생으로 프로그래머이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프로그래밍 회사를 설립하여 지금은 75억 불의 재산을 가진 세계 5대 부자에 랭크되었다. 다니엘 벨은 '이제 국가는 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작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크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것들이 '조직적'과 '자율적'의 의미를 재고하게 한다.

21세기는 과거와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문명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로운 문명이란 인간의 의식과 가치관, 인간과 자연의 관계, 사회 구성

야 할 것이다. 실무부서는 보강된 인력과 확장된 자율적 의사 결정권 및 집행권으로 학회의 추후적 부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럴 때에 학회는 다양한 주변의 요구를 기민하게 감지하고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총회나 회장단은 실무 부서를 지원하고, 학회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실무 부서 중심의 운영은 자칫 각 부서의 집단 이기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각 부서들이 자기주어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집단이 기주의로 흐를 때에, 이를 조정하는 것이 이들의 역할 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와같이, 실무부서의 자율적 활동과 총회, 회장단의 대표성 확보 노력이 균형을 이룰 때, 그 혼성적인 성격은 그 가치를 더욱 발휘할 수 있고 명실상부한 건축학의 리더로서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전문화, 다원적 사회의 진전으로, 학회는 각 실무 부서에 자율성을 더 부여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독립적인 각 실무부서의 연합체로 변신해야 할 때가 올 수 있다고 추정해 본다. 시대의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지 못할 때에, 학회는 단지 비대한 조직으로 진락하고, 이 변화를 수용하려는 새로운 조직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날 것이다.

정보의 관리와 비 효율적 제도의 개선

19세기 말 개혁은 '제국주의 침략의 출발'과 같은 낱안으로, 70년대 다국적 기업은 한국 경제의 수탈자로 인식되었으나, 근래 개방은 선진화, 국제화하기 위한 이념으로, 다국적 기업은 기업 성장의 보편적인 형태로 이해되고 있다. 개방화는 그 속도에서 우리가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급진전하고 있으며, 그 폭과 깊이에 있어서는 총체적인 범위로 문화의 질을 변화시키고 있다. 개방이란 각 개체들이 그를 얽매던 굴레를 해

체하고, 주체적으로 주변과의 관계를 설정한다 것을 의미한다. 이 시대에 전문적 개체만이 개체성을 가질 수 있으며 그들의 관계가 곧 새로운 사회의 구조를 이룰 것이다.

이에 학회는 전문적인 연구도 중요하지만 정보의 관리를 기본 업무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등장할 대학이나 기업체의 전문적 개체(연구소)는 학회의 전문적인 연구 기능을 많은 부분 대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 간에 교수 인력의 교류, 학점의 상호 인정되는 열린 시대에, 각 개체들은 주변의 전문 지식을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학회는 이를 위한 채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이를 유인물이나 전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거나, 토론회나 전시회 등 공동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회가 해야 할 또 하나의 역할은 비 효율적 제도의 개선과 연구나 교육을 진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라고 생각한다. 근래 건축계 전반에 걸쳐서 위기감이 조성되면서, 설계교육의 좌표가 여문화하였다. 학회는 이와 관련하여 '국제화시대를 맞는 우리 건축교육의 선진화'를 주제로 건축과 교수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건축교육백서'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학회는 지금 무슨 해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제는 전략과 추진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백서에서 밝히고 있는 개선 방향은 기존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내용과 그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구별할 수 있겠다. 그 내용에 따라 장, 단기 계획에 의하여 추진했으면 한다.

개혁은 피 교육자 사회의 리더 계층이 되는 20년 후를 고려하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대개 개혁은 이상적주의적인 경향이 있게 마련이다. 그 개혁 후의 긍정적, 부정적인 측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적인 모델을 선포리 우리 환경에 도입했을 때에 기존 제도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잘못을 범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개선은 시행착오를 인정하며 시험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 백서의 개선방향에서 중요한 이유는 설계 교육에 관한 것이었다. 설계 교육은 그 제도도 중요하지만 그 교육자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설계 교수는 교육자이기 이전에 설계에 관한 전문가이어야 한다. 그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교육제도의 개선과 함께 설계 교수의 전문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방안으로 풀 수 있을 것이다. 학회는 설계교수가 그 본연의 연구 및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기획 및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건축학회에 바란다

신석균 (광주대 조교수)

최근 대한건축학회 회장단이 새로 구성되고 기구도 대폭 개편된 시점에서 학회가 개최하는 '학술발표대회'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하고자 합니다. 학술발표대회는 명실공히 건축과 교

수 및 연구자 등 동료, 선후배간의 학술 교류의 장으로서 국내외의 정면 건축학자에 의한 "특별강연"과 "건축개혁 및 설계", "역사, 의장 및 건축론", "도시계획 및 단지계획", "환경계획 및 설비",

‘구조’, 그리고 ‘재료 및 시공’ 등의 ‘분과발표’로 구성됩니다.

특별강연과 분과발표를 통해서 현재 및 향후의 건축연구의 바람직한 연구풍토를 조성시키며 연구의 질적 수준은 향상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해가 갈수록 발표논문의 편수는 많아지고 그 내용의 질적 수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더 연구적이고 권위적인 학술발표대회가 되기 위해서는 대회의 운영상 보여지는 지금의 몇몇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은 분과발표를 3차례 진행함으로써 느끼게 된 학술발표대회의 문제점과 그 해결대안을 나름대로 지적,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학술발표대회의 발표분과는 6개 주제별로 8개 분과로 분류되어 있으나 분과별 발표논문의 주제와 분과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으며 발표순서도 주제에 관계없이 임의로 정한 듯 합니다. 분과별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발표순서를 정하면 다양한 주제가 서로 상호 관련되어 일관성있게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일부 분과에서는 발표논문의 수준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를 예방하고 학술발표대회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발표 이전에 논문심사는 반드시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진행위원의 선정시 개인사정도 고려되어 적임자가 선정되어야 하며 선정된 진행위원은 책임의식을 갖고 학술발표대회를 효율적으로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발표자는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발표자에 대한 사전확인 및 재조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미발표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공동연구자 및 지도교수의 참석률이 매우 저조하지만, 다양한 토론유도 및 보다 나은 향후 연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이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학술발표대회에서 무엇보다도 중요

한 발표 및 질의시간이 15분 정도로 제한되어 발표자가 정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발표내용에 대한 청취자의 이해가 부족하여 적극적인 토론이 어렵게 됩니다. 일부 분과에서 15분 발표, 15분 질의응답을 통해 충분한 발표 및 토론을 한 결과, 발표자 및 청취자 모두가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점을 고려해 볼 때, 현행 발표시간은 연장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특별강연의 지연으로 발표시간이 제약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특별강연과 분과발표를 동시에 하거나, 특별강연회를 분과별로 동시에 개최하고, 이의 종료 후 분과발표를 하는 방안도 모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과별로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국내외 우수연구자에 의한 분과별 특별강연을 개최하면 분과별 발표수준의 향상과 올바른 연구풍토의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발표 및 토론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1박 2일의 기간동안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하거나 혹은, 분과를 지금보다 세분화하여 분과별 발표인원을 줄이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발표장의 분위기는 발표자의 발표 자세 및 내용, 청취자의 관심도 그리고, 질문자의 질문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발표장의 규모 및 출입구의 위치 등 물리적 공간이 우선적으로 발표에 지장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발표의 효

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전에 간단한 발표요약문 및 연구의 미비점을 진행위원에 제출하는 것도 좋으며 발표논문에 대한 간략한 논평을 학회지에다가 별도로 기술할 필요도 있습니다.

논문발표가 하나의 완결된 연구결과를 발표한다는 생각보다는 연구의 미비점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보완점에 대해서 청취자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질문은 더러는 다양하나 부분적이고 편협될 수 있기 때문에, 진행위원이 모든 질문을 다 접수한 후 이것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일관성있게 질문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질문과 답변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도 향후 후학을 위한 논문자료로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다 권위적이고 연구적인 학술발표대회가 되기 위해서 개최기간, 논문심사 및 발표자 선정, 발표 및 토론 시간의 조정 등 학술발표대회의 체제 및 형식에 관한 프로그램과 지침이 마련되어 이를 통해 발표자 및 발표논문, 진행위원이 엄격히 선정되어야 합니다. 그 후, 학술발표대회의 성숙된 모습은 발표자와 토론자 간의 질의응답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학술발표대회의 체계적인 운영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논문편집위원회의 학술발표대회운영팀이 구성되어 이에 대한 검토 및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에 바란다

신남수 (전남대 교수)

느닷없이 원고 집필 의뢰가 왔다. 제목은 학회에 바란다란다. 그러고 보니 내가 학회에 가입한지도 25년이 넘는 것 같은데, 그 동안 학회가 무엇을 해주

었으며 얼마나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었는지에 대한 많은 불만과 함께, 내가 학회를 통해서 무엇을 얼마나 얻었고, 학회에 대해서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

으며, 학회에 얼마나 공헌했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이제까지의 통상적인 학회활동-학회지를 받아 보고, 춘·추계 학술대회 참가-만을 알고 있는 나에게는 곤혹스러운 일임에 틀림없고 이제까지 나의 학회에 대한 불만은 지부 활동 영역과 기회의 확대가 주된 것이었기 때문에 막상 그대만 정리하기는 너무 편협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학회 정관과 금년 5월호 학회지를 뒤적여 보았다.

회원수는 93년 보다 거의 1,000명이 줄어들어 94. 3. 31일자 3,569명인 것을 보면 근래에 대대적인 축성이 있었고, 따라서 적극 활동중인 회원이 3,600명에 가까우니 참 큰 학회인 것은 틀림없다.

또 춘·추계 학술발표 논문 수도 총 238편이고 각종 위원회 학술 활동도 14회, 각종 회의 133회, 총 결산 예산이 20억 원이니 모든 점에서 모범이 되는 학회인 것 같다. 그 외 친선모임, 건학회 등 활동도 다양한 것 같다.

그런데 언젠가 어떤 지부에서 "우리 대한건축학회에서 기대할 거 없으니 한국건축학회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있었다는데 그건 왜 그럴까?

건축의 여러 분야에서 젊고 참신한 학자들이 보다 세분화된 학회를 창립하고 점차적으로 건축학회와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럴까?

멀리 갈 것도 없이 이 원고를 쓰기 위하여 현재 전남지부 하계 설계캠프 지도강사들에게 뭘 썼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에 뭐 그리 걱정하느냐는 무이다.

논제는 "학회에 바란다"이지만 원고 읽고 학회운영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임 회장 취임해서 건축서 지면이나 채우면 좋겠느냐는 쓰면 된다. 하기가 내가 생각해도 그럴이 수궁이 된다. 25여 년간 학회지부활동에서 많은 학회 임원들(그 분들 중 많은 분들은 회장이 되셨다)은 붓을 쏘아 지던 지부의 건의와 불만에 대해 매번 희망만 주고 상경하면 오리무중이었으

니, 이것은 꼭 불신의 산물인 것만은 아닌 25년 이상의 실험으로 얻은 귀납적 사실인 것이다.

그렇다고 역시나 할 망정 혹시나 하는 기대마저 없으면 어찌 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몇 가지 짚어 보기로 한다.

무엇보다 먼저 그 많고 훌륭한 학회 활동에도 불구하고 그제 건축계의 발전과 건축인의 지위향상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물론, 많은 공헌을 했으리라고 생각하며 여기에는 발전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을 것인데, 특히 우리 학회 정관에 따른 건축인의 지위향상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뒤돌아 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했으면 한다.

사회에서, 관공서에서 건축을 어떻게 이해하고 건축가가, 건축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접받고 있는지 그리고 UR 등 급변한 상황에서 건축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의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 우리 건축계의 항구적 발전을 위해서 우리 학회가 건축교육에 외관상은 많은 관심을 보인 것 같지만 오늘의 현실을 보면 우리 학회가 무엇을 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무엇보다 먼저 4년제 대학 졸업생수가 내년 6,000명이라든가. 이 중 몇 명이 건축가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들의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학회가 이들의 앞길을 대해 고려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닌지, 그냥 교육당국의 재량에 맡겨야 하는 것인지 많은 이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 건축의 특성이 건물, 인간, 환경을 다루는 종합성에 있다면 건축교육의 특성도 여기에 있다할 것이나 과연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었는지 아니면 피동적이건 능동적이건 그와 같은 특성에 반하는데 학회가 도와 주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졸업 전에 치러야 하는 기사시험과 그와 반대로 졸업 후 5년이 지나야 만 가능한 건축사시험은 그 제도도 그렇고 그 과목도 학교 교육

의 파행을 조정하지 않았는지. 비록 학회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해도 보고만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대학의 강의실에서 인간의 환경, 공간, 사회개혁자, 가치의 조정자 등 듣기 좋은 수사는 모두 동원해서 바깥만 부풀려 놓고 실 사회 건축계에서 이것도 잘라내고 저것도 잘라내어 건축의 활동 범위와 건축가의 위상을 축소하여 온 것에 방조만 하고 있지 않았는지.

정 많은 교수님들이 구성원의 주류이고 사회적 인식이 학문의 공동체인 학회가 체축에 휩싸이는 것은 속진에 더럽혀 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건축의 발전과 건축계의 방향 그리고 우리 후배들의 진로에 큰 관심을 보이지 못하고 좌시만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일년에 한번 정기총회나 참석하는 내가 학회의 의사결정에서 내가 염려하는 것이 얼마나 고려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소위 학회의 임원진들은 아마도 현실에 안주하고, 실은 보수적인 상황을 떨 수 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렇고 보니 눈에 띄는 것이 학회의 의사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운영의 보수성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민주적이고 진취적이거나 할 학회의 의사결정은 대부분 회원은 누가 어떻게 결정했는지도 모르고 나를 따라 식의 통고로 일관했지 않은지.

물론 예전 보다 훨씬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3,600 회원 중에 명으로 느끼는 회원은 몇이나 될까?

우리 나라 학회 중에서 가장 큰 역사, 가장 큰 규모 그리고 외견상 그럴듯한 그래서 잘 나가는 듯한 우리 나라 대표적인 학회인 우리 건축학회를 너무 심하게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만 쓴 것 같지만, 하고 싶은 말은 더 많다. 과연 학회가 학술 토론의 장으로써 기능을 다 하고 있는지 또는 허장허세로 대학원생 논문의 중간 발표장인지, 학술 교류의 장으로서 역할은 충신했는지 건축계와 그에 관계되는 예민한 문제에는

학술단체라는 이름으로 외면하지 않았는지 등등.

이와 같은 여러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도 없고 또 전 보다는 많이 개선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고 교육을 받은 최고 지식 인임을 자처하는 학회구성원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며, 어떤 분들에게는 위기의식으로도 느껴지게 한다.

이제 국내의 상황이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 새로운 접근과 노력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 대처 없이는 재기불능의 상황에 직면할 지도 모른다. 모든 구성원의 학회 사랑을 결집하고 학술공동체의 힘을 발휘하도록 이끌어 가는 구심점이 학회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구체적인 예로 학회운영에 관한 90여 차례 회의 중 지부장회의는 단 2회뿐이고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이사진들의 구성은 서울사람끼리 안배해서 결정하고 또 자기들끼리 안배한 이사들이 회장을 선출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우리 학회는 유신시대인 것 같다.

대한건축학회에 바란다

김홍수 (단우 모람 소장)

본인은 건축학회의 활동에 대하여 많이 알지도 못하거나 기구가 어떻게 개편되었는지 또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형편이라 이렇게 펜을 드는 것이 마땅한가 하는 생각을 하였지만, 건축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한 건축가로서, 또한 건축계의 일원으로서 건축학회의 활동에 대하여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것 몇 가지만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로는 학회와 실무건축가와의 교류 및 정보교환이 보다 활성화되어야겠

이유야 많겠지만 조직이 활성화되려면 공동체의식을 공유해야 하고 공동체의식은 참여기회확대나 의사소통의 적절화를 통해서 이루어 지지 않을까?

이를 통해서 학회의 활성화와 통일된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언젠가 학회 어떤 분이 각 지부 몇 분이 모인 자리에서 지부를 포함한 학회 기층부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 말에 어떤 분은 한국건축학회를 창설해야 한다는 극언도 나왔고, 또 어떤 분은 다른 학회의 운영과 인적구성에 대해서도 비교해 보라는 말도 있었다. 어느 학회가 이처럼 철저하게 지부를 의붓자식 취급하는지, 이렇게 서울 독점주의를 완벽하게 유지해 나가는지 좀 있으면 있으면 말해 달란다. 동감이다. 물론 서울에 계시는 다른 회원들도 불만이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지부회원의 소외감은 이제 허탈감으로 바꾸어 지고 있다. 그러니 지부 활동에도 적극성이 줄어들 수밖에.....

새로워질 학회와 임원들에게 또 한번 기대해 본다. 25년간의 희망이 또 다른 실망이 되지 않도록 기원하며.....

다는 것이다. 학회의 활동, 대학의 논문이 학문을 위한 학문이 아닌 우리 건축계가 필요로 하고, 건축가들의 부딪힌 문제들을 연구하여 주고, 우리의 건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디자인 계획적인 측면 뿐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제시하고 시야도 열어주는 역할을 하였으면 한다. 그러기 위하여 실무 건축가들과의 교류를 끊임없이 하여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야 하고 현실사회에 대한 관심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

다.

둘째로는 정책 결정 참여시, 보다 전문화되고 조직화될 필요성에 대한 것이다. 각종 건축관계법령의 제정과정; 각종 심의의 기준마련과 심의과정 등에 개인적으로든 조직적으로든 건축학회의 일원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주도로 들러리를 서거나, 적당치 않은 사람이 참여하게 되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다.

학회 자체가 보다 능동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각종 정책 결정과정에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전문적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정책결과와 실무건축가들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현실과 괴리되지 않고, 건축을 좋은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 결정이 되었으면 바란다. 우리나라의 경우 각종 환경관계, 재해관계, 신체장애자를 위한 법규 등은 아직 제대로 수립되지조차 못하였고, 기존의 법규들도 제대로 된 전문가 집단의 연구결과가 아니라 외국 법규를 번역하거나, 내용을 모르는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많아 전문가 집단에 의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정책수립 과정에서의 학회의 역할을 크게 기대한다.

셋째로는 자료의 정리와 자료센터로서의 역할을 건축학회에서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일본에서는 자료집성이 만들어진지 수십 년이 됐고, 또한 최근 우리나라에도 잡지사에서 각 건물 유형별로 모음집 같은 것이 나와 잘 팔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러한 모음집이 잘 팔린다는 것이 자료집성에 대한 요구가 많고 또 출판시의 시장성도 충분하다는 이야기이다. 단순한 모음집이 아니라 학회를 통하여 연구되고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사무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대할 때, 아니면 어떤 것에 대하여 연구하고

자 할 때 관련논문, 자료를 수집하게 되는데 그야말로 원시적이라서 답답할 때가 많다. 컴퓨터의 이용으로 쉽게 또 효율적으로 자료수집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자료신라가 없음으로 해서 일어나는 낭비와 불편이 매우 크다.

각종 자료를 목록화하고 체계화시키

고 입력시켜 쉽고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최근 대한건축학회와 회장이 새로 구성되고, 기구도 대폭 개편되었다니 급변하는 시대에 맞추어 건축학회에 대한 각종의 요구를 수렴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학회를 기대하여 본다.

있게 교육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건축계의 발전을 위한 시급한 과제일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로, 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건설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현실점에서, 학회는 정부와 협조하여 건축계 전체가 진정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인 제도로의 개편과 함께 시장개방에 따른 각종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국내 대형건축물의 건설시 대부분의 경우 기본설계정도는 외국 설계업체에 의해 수행되었던 점을 상기하면, 그것은 단순히 건물의 기능과 외관에 대한 디자인만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시공시 필요한 각종 자재와 설비 등도 그 나라의 기준으로 선정되므로, 이와같은 보이지 않는 피해까지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의 조속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 현실성과 시사성을 지닌 살아 숨쉬는 연구주제들을 제시, 유도하고 학교·학회와 업계의 연결을 모색하여 학문적 배경에 경험적·실증적 자료를 더해 건설산업용 기술우위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였으면 한다. 과제 사업을 선정하여 새로운 생산, 관리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실증적인 기술의 개발, 축적 및 이의 보급으로 각종 신소재, 신공법이 전반적으로 적용, 확산되어 대외 경쟁력의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학회 중심의 일련의 활동을 통하여 상호이해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학계와 설계, 감리업계 및 건설업계 모두 균형있는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며, 새로 구성된 학회의 지도부가 이 모든 것의 시발점으로서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리라 믿으며 기대와 성원을 보내는 바이다.

건축학회에 바란다

김기동 ((주)대우건설 이사)

현재의 건설환경은, 대외적으로는 UR협상에 따른 건설시장 개방 및 국제화 추세가 가속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국가경제의 발전에 따른 국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건축에 대한 수요도 단순에서 다양으로, 양적인 면에서 질적인 면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으로, 단순 가격경쟁력이라기 보다는 기술, 신용, 자본조달 등의 비가격 경쟁력의 영향이 오히려 증대되고 있다.

국내산업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위치는 1993년 국민총생산액의 11.5% 규모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우리의 건설시장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급변하고 있는 건설환경을 적시하고 건설업의 현재위상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기술경쟁력 강화 및 선진건설 경영기법 적용 등의 당면과제 해결이 절실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건설산업제도의 합리적인 개선과 학계, 연구소, 설계·감리업계 및 건설업계 등의 적극적으로 부단한 연구, 능력있는 건설인력의 육성, 정밀한 설계, 시공 및 품질관리 등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동안 건축학회가 건축에 관한 학술, 예술, 기술을 연구하고 건축인의 지위향상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건축문화 창달에 크게 이바지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정부, 설

계·감리업계, 건설업계 등 1차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당사자들 보다는 이들과 모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더욱이 학술적 배경까지 갖추고 있는 학회가 가장 적절한 중간조정자가 되리라 생각하므로, 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참작하여 건축계의 미래를 보다 밝게 조명하여 주길 바란다.

첫째로, 설계 및 시공의 기술개발과 더불어 건설산업의 EC화 추진 및 CM 능력의 계고 등이 절실한 요구되는 현실점에서, 대학교육의 교과과정이 발전·확대되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 및 관리능력을 가진 인재가 많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학회가 변화의 기반조성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었으면 한다. 현재의 대학 교과과정은 대부분 1년 동안의 교양 및 전공기초과정과 3년 동안의 전공과정을 통해 건축의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도록 되어 있지만,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가는 건축계의 현실에 비추어 불행 아직은 양적으로 부족한 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학회가 중심이 되어 산학 협동체제 및 정보의 교환, 교류등을 시급히 정립함으로써 경험이 풍부한 업계와 연계하여 실무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현재의 대학과정에서 대부분 단일학과에서 교육되고 있는 설계와 시공부문을 나누어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학회제도 및 운영개선방향의 제안

대한건축학회 부산·경남지부 평의회

1. 학회운영의 민주화

(1) 학회 이사선임제도의 개선

가. 지부장의 당연직 이사 선임

나. 지부 규모에 따른 이사의 배정

(2) 학회 회장선출방법의 개선

가. 현 학회 확대이사회에 내정은 비민주적임.

나. 전 회원의 직접 투표에 의한 선거방식도 문제가 많을 것임.

다. 따라서 비례대표제 또는 이사선임제도의 개선에 의한 실질적 회원의 간접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임.

(3) 본회 조직의 개편

가. 속칭 본부회원, 지부회원과 같은 호칭은 그 자체가 비민주적이며, 위화감 조성은 물론 지부 활성화에도 막대한 장애요소가 되고 있음.

나. 서울 및 경기지부를 조속히 구성하여 본회는 본회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할 것임.

2. 학술활동의 개선

(1) 학회논문집 발간

논문집 편집위원, 심사위원에 지부회원의 참여를 적극 확대하여야 할 것임.

(2) 학술발표대회

가. 본회에서 주최하는 연 2회의 학술발표대회는 건축학 연구의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음.

나. 그러나 연 2회 전국규모의 대회로 인하여 각 지부의 학술활동은 상대적으로 위축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음.

다. 따라서 본회주관은 연 1회로 하

고 지부주관을 연 1회 개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각 지역의 학술연구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3) 학술연구용역제도의 개선

가. 학술연구용역에 서울·경기지역 회원들의 참여뿐만 아니라 각 지부회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방안을 강구하여 전국적 학술연구 풍토조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임.

나. 지역의 연구용역은 해당 지부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부로 이관해야 할 것임.

3. 재정제도의 개선

(1) 학회 각종 회비제도의 개선

가. 학회회비, 종신회비, 특별회원회

비는 30%를 본회에 이관하도록 되어 있으며, 논문회원 회비는 전액 본회로 귀속됨.

나. 학회지 및 논문집은 격월간에서 월간으로 바뀌어 간행되고 있음.

다. 논문회원에 가입한 경우 회지는 지부에서, 논문은 본회에서 우수받으며, 회비납부도 회비는 지부로, 논문회비는 본회로 납부하는 등 번거로운 점.

라. 회지 및 논문집을 동시발송할 경우 각종 경비의 절감이 기대됨.

마. 따라서 회비와 논문회비를 지부에서 동시 수납하고, 발송도 지부에서 일괄하여 행하여, 논문회비의 일부를 지부에 양여하여 지부재정의 건실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바. 특별회원회비의 경우 찬조금의 성격이 강하므로 전액 지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임.

(2) 학술연구용역 등 본회재정이 비교적 건실하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지부교부금을 현실화하여 지부활성화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임.

신간안내

건축시공학

장기인 저

20년 전 개정판을 사회발전과 새 시대의 요청에 따라 새로이 펴냈다. 신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용어의 정리
2. 지반개량·기초공법·지하연속말뚝의 신기법
3. 프리스트레스공법·PC판 제조법
4. 지붕공사·아스팔트 싱글·너와
5. 커튼월공사
6. 정화조·BOD·ppm·COD
7. 조경공사

- B5판 687쪽 정가 17,000원
- 보성각 924-6171~2

